

문제 1

1. 답안에서 '주체로서의 공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감'을 구분지어 비교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은 참신합니다. 하지만 이 논리의 외부적, 내부적 오류 두가지 점에서 첨삭해볼게요.

2. 일단 외부적으로, '개인적, 주체로서의 공감'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감'으로 구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에서 아이히만이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개인이 공감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이히만은 절대적으로 국가에 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따라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교를 세우는 등의 활동은 국가적 유도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기에 개인적 공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확실한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3. 또한 내부적 오류란 위의 기준으로 비교한 것을 타당하다고 전제하더라도 내부적 논리 전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아이히만은 국가의 명령 집행자로서의 자신을 선한 개인적인 자신과 분리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살인자로서의 아이히만은 단지 사회의 일부일 뿐이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수동적 주체라는 점을 근거로 정당화 한다는 점은 운명적 공동체임을 근거로 정당화하는 아킬레우스의 태도와 유사하다.그렇지만 아이히만은 국가에 대해 공감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차이는 확연하다.”

이 부분에서, 아이히만 개인이 사회의 일부일뿐인데 어떻게 자신을 개인적 자신과 사회적 자신으로 분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아이히만은 수동적 주체로 살인을 정당화 하는 것이고 아킬레우스도 운명적 공동체임을 근거로 살인을 정당화 해서 유사하다고 주장하셨는데 국가에 대한 공감이기 때문에 근본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논지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구요.

4. 참신하게 비교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내부적 외부적 오류가 있어 아쉬운 답안입니다. 이보다 공감의 '정의'에 맞춰 비교를 하려고 해보세요.

문제 2

1. 1번 문제에 비하면 완벽한 답안이고, 모범답안의 수준입니다. 첨삭할 부분이 없으며 주제, 폭력, 상상의 개념을 사용해 공감에 대한 논지를 펼쳐 아주 좋은 글입니다. 수고했어요 :D